

5·18 정신적 피해, 보상 형평성 위해 특별법 제정 절실

‘법원별 위자료 차이 문제’ 광주일보 지적에 기념재단 오늘 토론회 손배액 적정성·판결마다 제각각인 소멸시효 기산점 등 바로잡아야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형평성 있는 보상이 이뤄지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5·18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액수가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는 점< 9월 30일자 광주일보 6면>을 해결할 뿐 아니라, 법원마다 소멸시효 기산점을 제각각으로 해석하는 등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다.

5·18기념재단은 11일 오후 2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5·18 정신적 손해 국가배상청구 소송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기조발표를 맡은 이석태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행사에 앞서 미리 공개한 발표문에서 지금까지 5·18 정신적 손해배상 관련 판결에서 배상액의 적정성 여부를 전체적으로 분석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재판관은 발표문을 통해 “재판부가 정한 손해배상액이 실질적으로 유족의 개별 피해를 구체적으로 고려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인권적 관점을 충분히 감안한 것인지 여부, 유족 개개인의 사정을 변별했는지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으며 단순히 손해액 산정을 편하게 하기 위해 구급 일수만 보고 기계적으로 배상액을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멸시효에 대한 판단이 판결마다 제각각이라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서울중앙지법은 국가 측의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여 5·18보상심의위에서 보상을 결정한 때(늦어도 1994년 6월)를 3년 단기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가족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청구는 모두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광주지법은 보상을 받은 가족들의 경우 헌법재판소 위원 결정은 받은 때(2021년 5월)를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는 등 차이가 났다는 것이 이 전 재판관의 분석이다.

이 전 재판관은 “손해의 공평 부담 및 정의의 관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취지를 살려 그 결정 시부터 소멸시효가 개시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칙적으로 국가 측의 소멸시효 주장은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현욱 전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사무총장은 토론문에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5·18보상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1년 5·18보상법상 이미 지급된 5·18보상금에 정신적 피해액이 빠져 있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내려졌고, 이를 추가 지급해야 함에도 정부에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는 것이다.

결국 5·18관련자와 유족들이 각자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나섰지만, 손해배상액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없어 지역법원마다 상이한 판결을 내놓고 혼란과 불평등을 초래해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 박 전 사무총장의 주장이다.

그는 “법원마다 보상금의 격차가 심하다는 점에서 법리 오해로 판결 보상액을 수령한 유족의 재심 청구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법 제·개정이 필요하다”며 “유족회에서는 TF팀을 구성해 입법활동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에는 양성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김중세 부산울산경남 5·18민주유공자회 회장, 민병로 전남대 5·18연구소장 등이 참여해 현행 5·18 정신적 손해배상 관련 문제점을 분석한다.

이들은 지금까지 판결은 유체·정신적 피해뿐 아니라 취업, 교육 등 기회 상실 등 사회적 피해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 구급이 아닌 수배로 인한 피해는 정신적 피해에 포함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논의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제주 비양도 북서쪽 해상에서 부산 선적 129t급 어선 금성호가 침몰해 해경이 3일째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10일 현재 승선원 27명(한국인 16명, 인도네시아인 11명) 가운데 15명은 인근 선박에 구조됐으며 한국인 3명이 숨졌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12명 실종 금성호 한국인 시신 1구 발견

제주 해상 침몰 40여시간 만에

지난 8일 제주 해상에서 침몰한 금성호 실종자 12명 중 1명의 시신이 사고 40여 시간 만에 발견됐다.

10일 제주해경경찰청에 따르면 전날(9일) 밤 9시께 해군 광양함의 원격조종수중로봇(ROV)으로 수중 수색하던 중 바닷속에 가리앉아 있는 선체 주변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처음으로 발견됐다.

실종자를 발견한 것은 침몰 신고 이후 40여 시간 만이다.

해경 감식팀이 확인한 결과 금성호 한국인 선원 A(64)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선적 129t급 대형 선망 어선 금성호는 지난 8일 새벽 4시 30분께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2km 해상에서 배가 기울고 있다는 신고 후 완전히 침몰했다.

승선원 27명(한국인 16, 인도네시아인 11) 가운데 15명은 인근 선박에 구조됐고 이 중 한국인 2명이 숨졌다.

나머지 12명(한국인 10, 인도네시아인 2)은 실종 상태였으나, 이들 중 한 명의 시신이 이번호에 처음으로 발견됐다.

/연합뉴스

별목 작업하던 베트남 노동자 광양서 나무에 머리 맞아 숨져

광양에서 별목 작업을 하던 30대 베트남 노동자가 나무에 머리를 맞고 숨졌다.

9일 광양소방과 광양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10분께 광양시 진월면 한 야산에서 베트남 국적 외국인 노동자 A(33)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머리를 크게 다친 A씨는 결국 현장에서 숨졌다. A씨는 별목을 하던 중 쓰러지는 나무를 미처 피하지 못하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 포함 3명이 함께 작업 중이었으며,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사건 인사이트

‘박사방’과 유사한 채팅방 운영한 대학생들 성착취물 공유하고 돈 가로채...광주지법, 2명 중형 선고

일명 ‘N번방·박사방’ 같은 성착취물 공유 단 채팅방을 운영한 대학생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배포 등) 교사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교사 등으로 기소된 대학생 A(20)씨에게 징역 6년과 대학생 B(19)씨에게 징역 4년, 단기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과 7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0월께 페이스북 메신저에 ‘킹스맨’이라는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고 B씨를 관리자로 내세워 채팅방 참여자들에게 성착취물을 게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채팅방에서 ‘돈을 투자하면 코인으로 분산투자해 불려서 돌려 주겠다’고 속여 6명으로 부터 1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B씨는 2022년 12월 29일부터 지난해 6월 10일까지 ‘킹스맨’ 채팅방에 ‘박사방 자료 포함된 메가 링크입니다’는 글을 게시하고 링크를 알려주는 대가로 72차례 99만 2900원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받았다.

이들은 초대 받은 사람만 입장 할 수 있는 링크를 만들어 참여자들을 초대하고 ‘채팅방에 계속 참여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음란물 등을 게시해야 하고 따르지 않으면 강퇴시키겠다’는 수법으로 성착취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참여자는 지난해 2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등을 52차례 올렸고, 음란동영상과 복제물도 655차례 게시하고 배포했다.

재판부는 “A·B씨는 2020년 N번방·박사방 사건이 널리 알려져 자신들의 행위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뚜렷이 인식했음에도 2년 여 동안 채팅방을 유지했다”면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동휠체어 타고 길 건너던 80대, 승용차에 치여 사망

장성서...경찰, 사고경위 조사

대낮에 전동휠체어를 타고 도로를 건너던 80대 여성이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10일 장성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50분께 장성군 황룡면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30대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전동휠체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전동휠체어를 운전하던 80대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길을 건너던 B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분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